

# 긴급 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

### 아동수당 40만원 추가 지급... 도시락 안 싸도 되게 점심 제공·276개 지역시설에서 '무상돌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시간이 2시간 연장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된다.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내놓았다. 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상품권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총 3주 연기했다. 대신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

생들을 대상으로 개학이 추가 연기된 9~20일까지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6452개원에서 8만3226명(13.5%), 초등학교 4493개교에서 5만 2284명(1.9%), 특수학교에서 118개교 등 1189명(4.8%)이 신청했다.

이번주 긴급돌봄 수요가 유치원 7만 1353명, 초등학교 4만1866명이 신청한 것보다 늘어난 셈이다. 신청자 중 실제 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유치원 원아 43.2%, 초등학교생 48.7%에 불과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2차 긴급돌봄은 일하는 부모의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꿨다.

긴급돌봄 시간이 연장된 만큼 2주간 돌봄전담사 외에도 학교 교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지역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청

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수 운영시간을 중심으로 총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 276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눔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돌봄을 제공한다.

안전을 우려로 돌봄교실을 개리는 일이 없도록 소독과 방역은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4개월 동안 매달 1인당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가 긴급돌봄을 운영했으나 첫날인 지난 2일 전국 초등학교생의 0.8%, 유치원생의 5%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

됐다. 다수 학부모는 돌봄교실보다 자택 등에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를 받으면 정부가 직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해당 기업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선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육아부담을 부담하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대상 총 21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뉴시스

# 일본 "신천지 예측 범위 내 확진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로 추가 노출 막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신천지 환자들이 지금까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에는 방역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질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6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원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말부터 매일 5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신천지 신도) 9900명, 당게는 1만 명 넘게 자가격리 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유증상자·고위험군부터 검사를 진행하다 보니 격리된 사람들 중 양성자 숫자가 며칠에 걸쳐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확진환자 대부분 신천지 교회 관련 교인들 또는 접촉한 가족들, 그들이 일한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의 환자 발생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동거가족 등 가까운 이들과 검사 끝나면 1차 노출범위에서의 환자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포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신천지 외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본부장은 "다른 시·도나 대구지역 내에서도 신천지 교회하고 관련없는 그런 산발적인 유행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조치들을 해야 제2·3의 집단발병을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은 각 시·도가 적극적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유행이 신천지 교회와 같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대량 노출이라거나 집단시설에서의 노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따라 노출의 범위 또는 추가확산 환자들의 규모가 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를 강조하는 이유가 밀폐된 공간에서 또 다른 대량의 노출을 막자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 전북도, 도내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집중 관리체계 돌입

전북도는 지난 6일 도내 사회복지시설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코로나19 집중 관리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전체 1만300개소에 대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이날부터 매일 1회 이상 현장 방문 또는 유선으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경북지역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머물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 3일 송하진 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 현안과제로 지시함에 따른 조치다.

전북도는 시설별 담당공무원에게 종사자·이용자의 코로나 19 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중국 및 대구·경북 등 위험지역 방문 여부, 신천지 신도 유무 등을 확인해 상황 발생 시 즉시 조치하도록 했다.

특히, 시설별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용품 비치와 소독 실시 여부, 생활시설 등 위생관리 상황(면회 금지) 상황 등 위생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 도내 마스크 기업 현장점검

### 마스크 핵심 원자재 생산기업인 정읍 크린앤사이언스 시찰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전북도는 지난 6일 정읍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기업인 (주)크린앤사이언스를 방문해 마스크 원자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원자재 공급을 위한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 수급 조치' 시행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크린앤사이언스는 마스크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을 비롯해 가전용, 자동차용, 공조용 등 다양한 필터를 생산하는 전문 필터 제조기업으로, 현재 마스크용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확대생산을 위해 총 60억원을 투자해 3월 중 40톤/월 규모로 단계적 양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크린앤사이언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용 마스크 수요 급증으로 필터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멜트블로운의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마스크 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정읍에 위치한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생산기업인 (주)크린앤사이언스를 방문해 마스크 원자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당부했다.

급 차질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크린앤사이언스가 적기에 마스크 핵심원자재인 멜트블로운을 확대 생산한다는 소식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의 불편 해소와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물·재정적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일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판매량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수출제한 조치 등 정부의 '긴급 수급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범기 도 정부부지사는 "공급 차질을 겪고 있는 마스크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

## 신천지본부조사로 교인 명단 등 확보

### 중대본 "6시간 걸쳐 조사... 포렌식 등 분석 중"

정부가 지난 5일 6시간에 걸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본부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예배 참석자와 교인·교육생 명단, 보유 시설 소재 등을 확보했다.

김경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신천지 교인과 교육생 명단, 구체적인 예배 출석 내역, 보유시설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제1총괄조정관은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팀과 대검찰청의 디지털포렌식 분석팀이 함께 참여해 분석 중"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4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경찰청 등과 협의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전담반 2명과 방대본 역학조사팀 2명 등 조사단을 구성하고 대검찰청 포렌식 분석 관련 인력·기술·장비까지 지원받았

다.

이어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에 걸쳐 경기 과천시 신천지 본부에서 주요 조사내용으로 밝혀진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 사항 등이 담긴 명단, 신천지 측의 출석확인시스템상 예배별 출석 기록, 교회 등 시설 소재지 등을 확보한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예배 참석자 명단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발생한 다수 전파와 관련해 초기 감염원이나 집단 발생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역학조사 필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지난 5일 "신도 명단 외에도 실제로 예배에 참석했는지, 참석했던 예배 시간대, 또 어떤 형태(로 진행됐는지)가 파악돼야만 전파와 관련된 것도 규명이 가능하다"며 "상세한 사항들이 어떻게든 확보되는 것이 방대본 입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매우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홍서윤(1979. 11. 16.생 2019. 11. 2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전선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0노단186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전선

▶피상속인: 망 홍서윤(1979. 11. 16.생 2019. 11. 21. 사망)

최후주조: 전주시 완산구 곤지산4길 19 (동완산동)

▶공고인: 최복여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0. 2. 21.

▶공고기간: 2020. 3. 9. ~ 2020. 5. 8.

▶주소: (청구대리인 김준영)전주시 덕진구 둔사평1길 9(덕진동1가, 스키아빌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연락처: 010-3703-7815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